



# ‘바람’ 이 이야 기

제주마을기업의

셋  
바  
람







제주마을기업의

‘바라담’ 이야기

바  
라  
,  
이  
사  
기

제주마을기업의



## 들어가는 말

바람(風)의 섬에서 활동하는 마을기업의 바람(望)을 실었습니다. 제주는 탐라국 시절에 바람을 타고 해상무역을 했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마을기업은 여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에 부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힘이 모아져야 방향이 생기고 움직이게 됩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 우리의 바람을 모아 순풍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습니다. 가벼운 바람도 함께 모이면 위력이 강해집니다.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의 바람을 타고 우리 함께 순항할 것입니다.



## 제주마을기업의 ‘바람’ 이야기

# CONTENTS

### 마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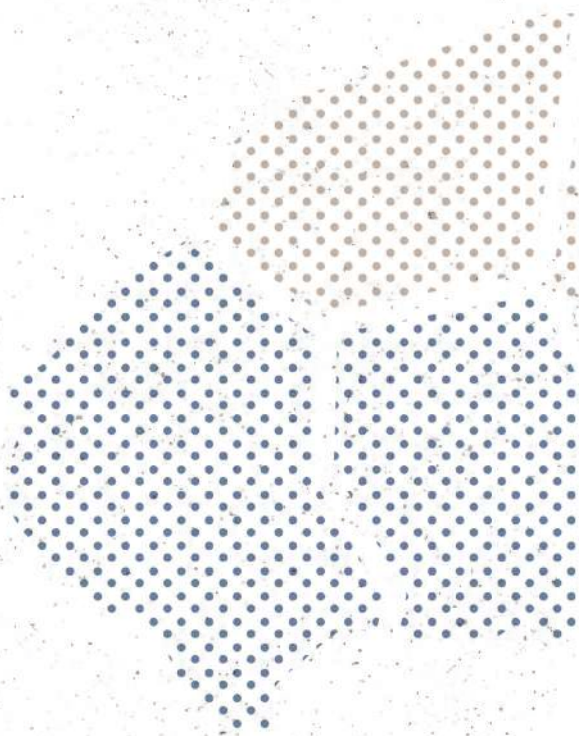
- 가파도마을협동조합 72
- 마라도협동조합 78
-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84
- 운지오름영농조합법인 90
- 머채왓숲길 영농조합법인 96

### 하니부름

- 협동조합 모두락 104
- 영농조합법인 삶의벗따라차 110
- 제주본초 협동조합 116
-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122

### 더 바람

- 금능맛차롱 협동조합 130
- 하례마을공간내창 협동조합 132
- 제주담은 협동조합 134
-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 136
- 제주돈내코힐링센터협동조합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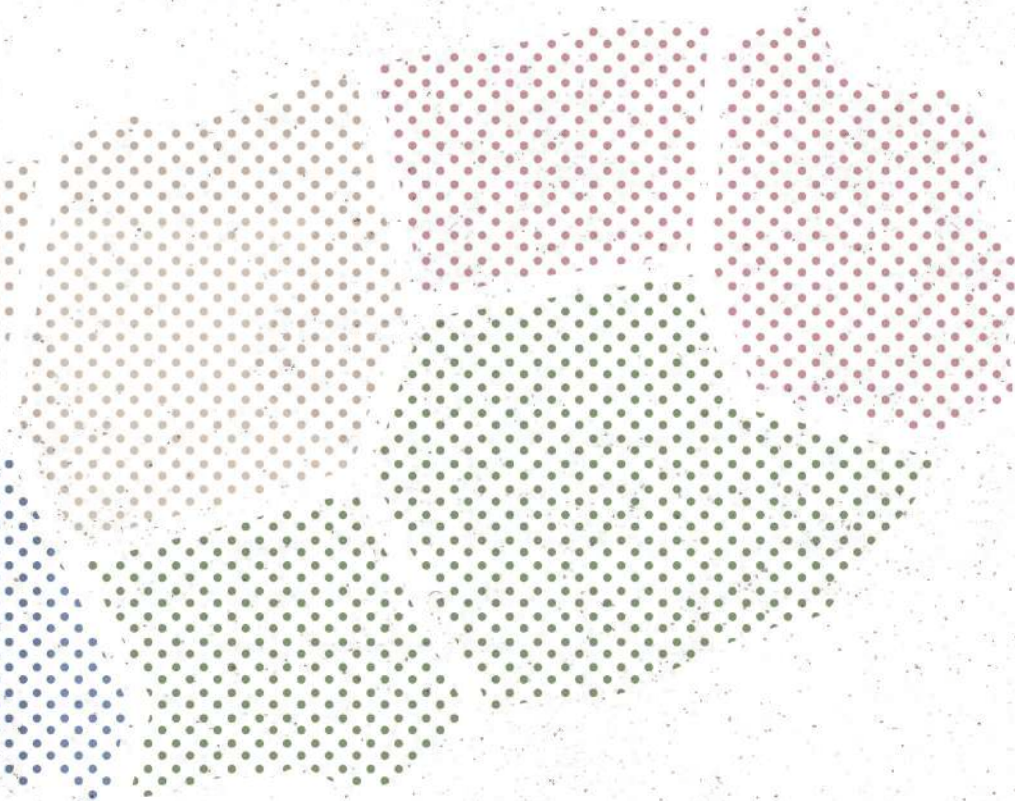


## 셋부름

-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주) 08  
농업회사법인 (주)섬지코지 14  
온평모다들영(주) 20  
(주)해마 26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32

## 갈부름

- 그래고내바다 40  
앤씨푸드 영어조합법인 46  
영농조합법인 조수리 농부의 아침 52  
탐나금악협동조합 58  
반딧불이마을영농조합법인 64











맛있는 공동체



셋  
바  
름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주)

강은주 대표

구좌읍 덕천리에는 당찬 이모들이 있다. 이모들이 모여 썩엿 등을 만든다. 썩엿은 제주도 전통 음식이다. 예부터 제주에서는 보양식으로 썩고기를 넣은 엿을 만들어 먹었다. 우리네 할머니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들었던 것처럼 이모들이 모여 맛있고 영양 높은 식품을 만든다.



## 덕천리 마을기업

마을 이름 덕천리는 물의 덕을 본다는 뜻입니다. 덕천 마을은 설촌한 지는 한 40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주 어디나 그렇지만 우리 마을도 4·3의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또, 우리 덕천리 모산이 연못은 세계자연유산이 인정한 곳입니다. 성씨마다 농작물을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집성촌처럼 같은 성씨끼리의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이 오는 날 같은 마을 안에서도 어느 곳은 눈이 오고, 또 어떤 곳은 눈이 안 오는 곳도 있는 독특한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을이 우리 덕천리입니다.



사실 우리 마을은 토질이 좀 척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농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리, 콩, 메밀 등의 밭농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콩을 활용한 된장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메주를 만들고, 메주 만들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을기업으로 모양을 갖추고 인증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평엿, 된장, 미숫가루 등을 생산합니다. 덕천리 평엿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TV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6시 내 고향' 등에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평엿 판매율이 높아 세금만 천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시작하며 교육도 받고, 등기 등 행정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 농업인 단체입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마을기업은 정책적으로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을기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인간적인 연대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셋  
바  
람



##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이모네

제주도의 공동체 전통에는 다들 아시는 수눌음이 있습니다. 이 수눌음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형성이 된 것이잖아요. 저희도 이곳 덕천리에서 서로 힘을 모아 수눌음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마을기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음식은 정(情)을 담아낸 공동체가 식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방법도 할머니로부터 전해온 방식으로 합니다. 콩 삶을 때 장작 대신에 가스로 한다는 것 빼고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핑yet 역시 어르신들이 맛을 보시면, 옛날 맛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로 음식을 만듭니다. 힘들긴 해도 서로 웃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웃음꽃이 계속 필니다. 우리가 흔히 왜 고모네보다 이모네가 좀 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외가 쪽이 웬지 정이 더 가는 게 있습니다. 이모네 식품이라는 이름은 마을 사무장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성들이 일하고 있어서 엄마, 이모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이름이 지금도 참 마음에 듭니다.



### 맛있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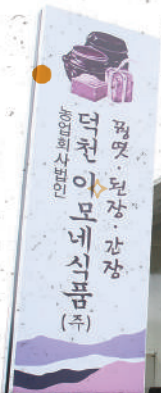
우리가 만드는 것이 다 식품이기에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씁니다. 또한, 매출에 대한 점을 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나눕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대표라고 해서, 사무 일을 본다고 해서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는 일이 엄청 밀려 들어옵니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땐 일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한 식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니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마을기업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 역시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가자는 의식이 있어야 마을기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다른 마을의 사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바꾸거나 마을기업을 없애는 경우도 있던데 저희는 가능한 지속할 계획입니다.

행정이 어렵거나 고객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주문도 점점 늘고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즐거우니 이런 맛있는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셋  
바  
람





## 아름다운 섭지코지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섭지코지  
정광숙 대표



섭지코지 자연경관이 빼어난 신양리. 바다로 가는 길에서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를 만날 수 있다. 걸어서 산책하기 좋은 섭지코지에서 신양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푸른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빛깔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셋  
바  
람

## 공존의 마을



이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구성원이 13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81명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빠진 인원과 이주와 같은 인구감소도 있고, 80세가 되어 어르신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면서 점차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구성원 간의 세대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의견을 듣고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을은 빼어난 자연경관이라는 천연자원을 갖고 있었지만,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자원을 뺏긴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원동력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상생은 거창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해 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마을기업의 취지이겠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해녀분들의 공동체 의식을 공존의식으로 받아들여 마을기업이 마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섭지코지에서

신양리는 아름다운 섭지코지를 두고 있는 마을입니다. 섭지코지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기업의 전유물이 되어버려서,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섭지코지가 발전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전보다는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고, 리조트 등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참 순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업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전 갯갯이에 가는 도로도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도 유실되고, 섭지코지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있기 전에 마을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업들은 말로는 상생을 말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을은 자연 친화적인 상가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판매 상품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만들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 마을 사람들의 가계

마을 사람들이 섬지상가를 운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타지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농어업 생산물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 상가는 마을 사람들의 지역 생산물을 매입하고 홍보와 판매를 하니 마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바닷가 불턱에서 해녀들이 쉬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해산물을 팔라 해, 조금씩 팔던 것이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섬지코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향으로 섬지코지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일명 '다라이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말이면 수익을 공동으로 나눕니다.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도 쌀 등으로 배분해드립니다. 이는 할망바당 문화처럼 기력이 쇠한 노인들 위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제주의 수놓음 문화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빨소라 껍데기 처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빨소라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주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양리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신양리는 해녀 활동이 활발합니다. 섬지코지를 중심으로 빙 둘러진 바다가 있습니다. 해녀들의 쉼터인 불턱도 볼 수 있죠. 또, 쪽빛 바다를 자랑하는 신양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자원을 잘 활용해 주민 모두와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을기업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셋  
바  
람







# 제주 바다의 맛과 영혼을 전하쇼



셋  
바  
람

## 온평모다들영(주) **현재봉** 대표

수국이 필 무렵에 탐라 건국 신화인 '삼성 신화'가 있는 혼인지 온평리 마을을 찾았다. 온평모다들영(주)은 제주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조류를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제주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이 바다와 마을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국이 빛깔을 내면서 마을을 지킨 것처럼 온평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마을기업이 온평모다들영(주)이다.



## 제주 바다와 마을기업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님의 제안으로 마을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평리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 전국 최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미역을 팔아서 풀빵을 사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값을 잘 받던 미역도 점차 관료가 어렵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녀분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해조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하는 마을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힘들어하는 마을 사람들을 마을기업으로 해서 함께 힘을 모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해조류는 우리 제주도의 밥상에 소중한 올라가야 할 자산입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제주 바다와 해조류입니다. 몇 해 전에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판촉 행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판매 우수 마을기업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해조류의 효소를 활용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조 홍게 맛간장 만능소스, 돌순이 해조효소 새아씨워드, 돌순이 해조효소 비타젤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경영 위기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3년째 매출이 연 1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나가야 하니 차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 어떤 결과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은 몇 년 동안에 사활을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 바다와 마을이 어떻게 뜻을 같이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셋  
바  
름

은평리는 제주도 동쪽 바닷가 마을입니다. 100% 자연산 해조류는 마법의 효능이 있어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산모가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자연산 생 돌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위한 음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처럼 바다에 건강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미역이 아닌 생미역의 맛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통 기술이 발달해서 생미역을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조류 상품은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 인쇄 부분도 최소화합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채소, 불로초로 불리기도 하며 무기질과 철분이 풍부하여 피를 맑게 해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빈혈, 고혈압, 동맥경화, 변비, 암 등 여러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 거센 파도를 넘어

마을공동체의 영향으로 모두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법인 성격의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에 협동조합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신경을 덜 쓰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기계 설비 구축을 하고,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하여 대표 혼자 끌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들의 지원체계가 다 다르고, 금액도 다 달라서 맞춰서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부처를 구분하지 말고 한곳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도 일원화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평리에는 혼인지라는 아주 좋은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지 수국도 유명해지고, 공연도 하고 좋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이 더 원활해져서 마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마을기업에도 제한 사항을 줄이고 폭넓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해조류는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지만 유통을 못 해서 바다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개발은 물론 상품화를 하여 유통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  
바  
람

## 그래도 따뜻한 제주 바다에서

저는 온평리에서 태어나 군대 생활 3년을 빼고 줄곧 마을을 지켜 왔습니다. 제 별명이 우체부 아저씨입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마을에 관해 관심을 두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마을과 공생도 생각합니다. 가령 다른 마을에서 생산한 해조류를 팔지 못하고 있으면 온평모다들영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제주 바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을기업 제주도협회를 지내기도 했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마을기업이야말로 제주도 공동체인 수놓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주들이 마을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점점 경쟁이 심해집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마을기업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런 취지가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온평리가 고향이고 평생, 이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어머니도 해녀였으며, 그래서 물질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온 겁니다. 온평리, 따뜻하고 평평한 땅이라는 마을 이름처럼 이 마을이 세계 준 따뜻함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낭폰 밥상이라는 공동체, 해녀밥상이라는 웰빙 문화를 이 상성한 청정 제주 해조류로 전하려고 합니다. 온평모다들영(주)은 해녀의 자산가치와 해조류 자원들을 6차 산업화시켜 지역민들의 소득,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월정리 바다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셋  
바  
람

(주)해마 김성호 대표

바닷가 풍경이 예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월정리 바다. 바다가 곧 놀이터였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바다에서 마을기업을 만들어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업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마을기업을 만든 까닭

청년 시절 객지에 나가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월정리 바닷가 주변으로 상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기 마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부모님 세대들이 이 땅에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삶을 이어왔고, 바다의 환경들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화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정리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명소지만, 관광 소득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도 월정리 바다는 우리 마을의 천연자원인데 '왜 마을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과 법인을 구성하게 되었고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을 관광상품개발과 레저사업으로 정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월정리 개발위원장도 맡고 있어. 기획 있을 때마다 마을주민들과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환경이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마을기업도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주된 사업은 패들 보드와 서핑이지만, 다른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실버 패들 요가를 통해 나이 드신 분들만 아니고 중년분들도 함께 패들을 활용한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해녀와 함께 하는 패들 스노클링 통해 해녀의 안내를 따라 안전하게 바다를 유영하고 물속을 체험하는 상품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설립된 후 매년 수익 중 일부는 학교 장학사업이나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에 환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셋  
바  
람

## 상생의 바다 공동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 유소년 레저 체험 행사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유소년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제주도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배울 정도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서핑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이나 바다 환경에 대해 이해도 함께 진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보호와 해변 정화가 기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가 오염됩니다. 서핑을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실천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교육이 거듭 이루어지다 보면 청소년의 성장에 좋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아이들이 해양환경과 해양 스포츠에 관심을 더 가질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 월정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기업은 해양 레저 상품을 개발하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동력 상품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동력으로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품만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월정리는 참 예쁜 바다입니다. 추억도 많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상업화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옛것을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갖고 관광 상품화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월정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관광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바다가 예쁘데, 카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 차원에서 우리 마을의 어떤 천연자원들을 발굴해야 스쳐 가지 않고 머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정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당처물동굴이 있습니다. 용암동굴이면서 석회암 동굴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도 알려져 함께 마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면 좋을듯합니다. 월정리는 최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도 지키고 청정의 바다도 함께 살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것이 제주도이며, 이런 특징을 활용하는 곳이 제주 마을기업입니다. 결국, 환경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사시는 분 중에는 여전히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섬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바다라도 타성에 젖으면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 월정리 주민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원칙을 지켜가면서 마을기업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메밀꽃 피는 마을 대표



##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강상민 대표

한라산의 맑고 시원한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마을 광평리. 광평리에는 제주 메밀에 대한 노래가 있다. 마을 창고 벽에 악보가 그려져 있다. 메밀꽃 피면 노래도 함께 울려 퍼질 것 같다. 메밀 생산 면적 1위인 제주도, 땅의 여신 자청비 이야기가 서려 있는 광평리에서는 맛있는 메밀 음식으로 하늘이 내려준 행복을 전하고 있다.



## 메밀이 중심인 마을기업

광평리가 제 고향입니다. 광평은 해발 500미터 고지에 자리를 잡은 마을입니다. 마을기업 이름은 우리 노인회장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한라산아래첫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 먼저 어떤 농사가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목축업을 했던 마을이어서 경육식당을 해보면 어떨지 생각했는데, 이미 마을 목장은 연쇄 부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주도가 메밀의 최대 산지이기에 농사가 잘될 거라 여겨 주민들을 설득해 크게 메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메밀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밀 축제 '제주메밀에 흠하다'도 열게 되었지요. 아마도 설촌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마을을 방문했을 겁니다. 조근대비약 메밀꽃트레킹, 메밀쿠키·메밀향초·베개·국수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후자가 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지켜봐 주면서 기다려준 게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마트에는 이미 강원 봉평 메밀이나 중국산 메밀이 입점해서 자리를 굳힌 터라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작년부터 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발전기금과 복지기금도 내고 있습니다. 제주민속촌에 표선 직영점을 내고, 가공공장도 세웠습니다. 특히, 식당은 메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셋  
번  
름







### 맛있는 이야기

메밀의 품종을 연구 개발하면서 '기능성이 향상된 메밀 싹 및 새싹 채소의 재배 방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메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과 카페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메밀 축제도 개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6차산업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작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카페에서는 메밀라떼, 메밀그린티라떼 등을 판매합니다. 마을 식당에서는 제주 메밀 물냉면, 제주메밀 비빔냉면, 제주메밀 비비작작면, 제주메밀 조베기 등을 드실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백반기행'에 저희 식당이 소개되면서 비비작작면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비비작작면은 비벼 먹는 메밀 음식입니다. 들깨, 참깨, 나물 등이 들어가 식감을 높이고, 특제 간장소스가 들어가서 맵지 않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느덧 제주의 대표 맛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메밀꽃 피는 마을

우리 광평리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을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줘서 뜻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메밀이 광평리에서 잘 재배되었고,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함께 하라산 아래 첫 마을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체적 수익 구조도 있고, 사적 수익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의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을 하다 보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처음에는 다 공동체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배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마을기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점은 어느 마을이나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둔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과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마을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작년에 지역 소멸 위기를 마을공동체 노력으로 극복해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로 인정받아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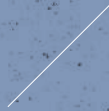
보조금 사업은 유용합니다. 지원사업으로 홍보라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에만 너무 의존하면, 경영환경에 견뎌내야 할 맷집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마을은 계속 고령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령 농기계를 공유하고 공동 농업창고를 세우는 등 농업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평리가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가는 마을이면 좋겠습니다.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메밀밭 길을 거닐고, 식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  
ㅂ  
름



## 갈 부 림



갈부림은 서쪽에서는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입니다.  
건드렝헝 바람이 낭쩍을 흔드는 가을은  
열매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마을기업은 언제나 풍성한 보람을 수확하기를 꿈꿉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풍요를 기원합니다.



고남리에서  
들리는 숨소리





### (주)그래고내바다 김도형 대표

고내마을은 제주 바다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마을이다. 그래고내바다는 거센 물살을 견디고 자란 해산물을 먹거리로 한 제품을 생산한다. 해녀들은 자연과 벗 삼아 물질한다. 해녀들의 깊은 마음이 마을기업으로 나타나 다시 제주 바다로 제주의 미래가 펼쳐진다.



갈  
바  
람





## 해녀와 함께 고내리 바다에서

고내리는 애월에 있는 농어촌 마을입니다. 고내포구라는 아름다운 포구가 있고, 고내붕이 마을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의 여느 농어촌 마을처럼 반농반어를 하면서 사는 마을입니다. 저는 고내리의 이 품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요즘 애월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고내리는 그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제주 마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 자체가 곧 좋은 상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마을 기업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해녀분들과 톳부각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해녀분들이 고령화되어서 물질을 못하게 되니 소일거리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렇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을 인증 받게 되었습니다. 해녀는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녀는 기계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느낄 수 있는 해녀의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해녀가 참여하는 마을기업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갈  
바  
람





## 툇과 소라, 깊이 있는 맛

우리 기업의 주력 상품은 바로 툇부각입니다. 고내 삼촌 해녀들이 직접 채취합니다. 청정 제주 바다에서 제주의 천연자원 중 하나인 툇을 활용해 이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 툇이 몸에 참 좋은 음식인데, 사람들이 그 점을 잘 몰라서 아쉬웠습니다.

툇은 바다의 불로초로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노화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항암작용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무기질과 철분이 풍부하고,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김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부각이 됩니다. 툇부각 외에는 소라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곳 고내리에서 소라 판매 드라 이브 스루를 한 적이 있을 정도 이곳은 소라 또한 툇과 함께 대표적인 해산물입니다. 활소라, 자숙소라, 소라꼬치, 보말죽 등을 판매했는데 저렴하면서도 신선한 제품이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 유통기한 짧지만, 맛이 깔끔하고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툇부각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어요. 여행이나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니면서 출출할 때 간단히 먹기에 좋고, 안주로 먹기에는 좋고, 맛있으면서 건강도 있으니 아이나 어른의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우리는 해녀분들에게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할 때 청년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제주의 해녀 공동체와 협동조합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함께 만들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일이 서로 비슷합니다. 저희는 마을 해녀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이장이 대표를 맡습니다. 그러니 마을의 일이 곧 마을기업의 일입니다. 그래고내바다의 서브 타이틀이 '깊이 있는 마을'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채취한 툇과 소라로 제주의 오래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고내리가 애월읍 중에서도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마을이어서 좀 깊이가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깊이 있는 마을로 제주 바다에서 끌어올린 수산물로 친환경적인 제주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갈  
바  
름

###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을

고내리 어촌계와 함께 마을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음악공연을 고내포구에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공연 제목이 '까파치기'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는 걸 까파치기라고 합니다. 별다른 여가가 없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공연은 마을 브랜드를 해녀로 하고서 펼친 무대였어요. 해녀분들이 흥이 많습디다. 물질과 삶이 고된 만큼 춤과 노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연을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녀분들의 애환을 웃음과 음악으로 풀어내는 모습에서 응원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고내 어촌계와 함께 노인정에서 잔치를 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나누고, 국은 몸국으로 하고, 톳으로 무침하고, 전복찜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제품들을 서울시청과 한살림에도 보냅니다. 그렇게 제품홍보도 하면서 점차 제주 바다의 가치를 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내리는 파도처럼 마음이 출렁이는 마을입니다.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주의 천연 해산물을 활용해 훌륭한 제품들을 계속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행복을 낚다



### 앤씨푸드영어조합법인 이해은 대표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 바다는 삶의 현장이자 원천이다. 앤씨푸드영어조합법인은 바닷가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제주의 전통문화인 테우를 활용한 체험장을 운영한다. 마을 사람들은 제주 바다에서 일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갈  
바  
름



## 바다 이야기의 출발

마을 이야기를 찾던 중 제주도 전통 배 ‘테우’ 만들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옛날 제주의 어로를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기존에 있던 양식 조합이 있어서 지원사업을 준비했는데,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가 점차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기업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라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외에서 찾아온 청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용도 안정되면서 차차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 간 청년이 약 스무 명이 넘습니다. 앤씨푸드는 제주 바다에서 제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입니다. 바다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희 낚시터를 찾으시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을기업의 희망

바닷가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듯 바닷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참 힘들습니다. 사업장이 바다에 있다 보니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태풍이 불거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늘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강풍에 배의 일부가 날아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바다에서의 프로그램이 일절 금지된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단체로 체험을 오기도 했는데, 세월호 이후로 푹 끊긴 겁니다. 얽힌 데 달친 격으로 작년 여름에는 체험용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고기 집단 폐사 이후에는 한동안 힘들었지만, 다시 낚시터를 정비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잡고 낚시밥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마을기업 재지정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실내 활동보다 실외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청년 직원이 홍보를 해주면서 손님들이 좀 늘었습니다. 블로그, SNS 통한 홍보를 하니 효과가 커서 늘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 특히 어린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우리는 낚시 체험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낚시를 돌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때도 마음이 행복하거든요.



한림읍에 있는 마을기업인데 처음에는 한림 사람들이 낚시체험장이 여기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여러 학교나 기관에 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험비를 만들어 학교에 지원해줬고 학교에서도 체험하러 오게 되면서 홍보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보니 주변의 관심이 곧 마을기업의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사연도 많았지만, 이제는 운영도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주변에 인지도 높아져 갑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활터전, 올레바당

자연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정말 기분 좋은 체험입니다. 가두리 낚시터에는 참돔, 우럭, 쥐치, 전갱이 등이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물고기만 봐도 탄성을 지르는데, 물고기를 잡게 되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낚시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 생동감 있고 즐거운 추억을 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전한 체험을 위해 시설을 보강 중입니다. 비가 와도 체험을 할 수 있게 비닐 텐트를 쳐서 비가림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체험을 위해 환경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중 체험이 가능할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예약을 받아 낚시 체험을 하는데,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예약이 늦어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일하는 우리도 즐겁습니다.





마을에서 나는 툇, 비트 등을 활용하여 마을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낚시 체험객들에게 건조툇을 나눠주고, 비트호떡, 툇호떡 등을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줬습니다. 지금은 호떡이 무료가 아니지만, 그 수익금은 학교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합니다. 기부는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함께 잘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조합원 중 한 분이 다이버라서, 주기적으로 낚시터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바다 청소를 합니다. 물고기들이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줘야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테우 안전정비를 다시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을 녹음해서 틀어주려고 합니다. 테우 이야기, 낚시 이야기, 제주문화 이야기 등을 해줄 생각입니다. 제주에는 다른 좋은 체험도 있지만, 저는 이 낚시아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라서 쾌감이 있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 기쁨을 함께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갈  
바  
람

## 조수리의 아침이 더 밝은 까닭



영농조합법인 조수리농부의아침 김병섭 대표

5월 단비가 내리는 날에 조수리 ‘농부의 아침’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김병섭 대표를 만났다. 조수리는 제주시 한경면의 중산간 마을이다. 이곳에 ‘농부의 아침’이 있다. 단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봄날의 마을을 산책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꽃길 걷는 아침

조수리는 언제나 따뜻한 느낌이 드는 조용하고 편안한 마을입니다. 봄에는 장미꽃이 마을길에서 인사를 합니다. 설촌 유래에 따르면 원래 용선달리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수, 저지, 청수, 낙천 등지에서 살게 되면서 조수리 마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수리는 예부터 제주 서쪽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조수교회부터 마을 길을 걸으면 장미꽃 길에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 4·3사건때는,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견뎌낸 마을 길은 꽃길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미 마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5월에는 빨갛게 장미꽃이 피니 우리 마을을 방문하면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꽃을 많이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신창부터 시작해서 조수까지 벚꽃길이 길게 있습니다. 웨딩 촬영하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청년회와 마을 사람들이 꽃 마을 만들기에 뜻을 함께한 결과입니다.

갈  
바  
름



## 조수리 농부의 아침에서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농부의 아침’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마을에 대한 사랑입니다. 중동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마을 전체가 협력했습니다. 특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발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에서 더 보람된 농사를 짓자는 취지가 그 출발점입니다. 농작물을 팔아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것에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러면서 농산물 파치를 활용한 사업들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원두막 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작물을 내놓았습니다. 브로콜리, 콜라비, 비트, 양배추 등을 주로 모았습니다. 그 후 원두막도 새로 만들고, 수익금을 한경면 지역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었어요. 그동안 재활용 교육도 있었고, 음식 만들기 교육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작가, 운술 화가와 함께 친환경 캠페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마을 폐교를 활용해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활동도 했습니다. 최근에 참기름 관련 마을 사업이 인증 취소되는 걸 보면서 시대에 맞게 사업을 조금 더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모일 때면 함께 할 사업들을 고민해 봅니다.





갈  
바  
람



## 마을의 미래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플리마켓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장을 휴면하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면서 조합 운영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수리 농부의 아침은 마을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면서 뜻이 있는 청년들의 도움으로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애착이 큰 공간입니다. 농부의 아침에 있는 무인카페 역시 무인이지만 매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차차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이런 찾집이 마을에 있어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손이 매일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 풀도 뽑고, 삽질도 해주고, 자기대로 청소도 하고 갑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갈  
바  
름

주기적으로 문화장터를 열어 어르신과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장터에 아이들이라는 구심점은, 저와 청년회에게 친구의 아빠, 삼촌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관한 관심도 커졌고, 아이들도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교실을 열어 '조수리 아이들 업사이클 및 그림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추억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 중에는 책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공간은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조수리의 미래는 바로 뜻이 있는 농부들, 마을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수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농부의 아침에서 이렇게 피어나 머지않아 조수리 전체가 희망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 제주의 맛

### 탐나음악협동조합 송윤건 이사장

쉽이 있는 마을 금악리는 제주도 서쪽에서 봤을 때 한라산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한라산의 경기를 가장 먼저 받아서일까. 이 마을은 드넓은 목장이 많아 예부터 목축산업이 성행했다. 탐나음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음악 핫도그 판매장에서는 양배추, 당근 등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다른 마을기업의 로컬상품을 판매도 한다. 으뜸과 슬지가 있어 아름다운 금악리에서 마을 청년들이 힘을 모아 제주의 맛을 선보인다.



갈  
바  
름

## 청년 마을기업과 금악리

제가 나고 자란 고향, 금악리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많은 마을입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금오름부터 벵딕못을 비롯한 못들과 성이시돌 목장,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테쉬폰 등. 제주 중산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입니다. 금악리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오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로 특히, 석양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금오름은 높지 않아, 오르기 쉬워 가족 단위 관광객들부터 연인, 친구들과 제주, 오름의 풍경을 즐기는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분들도 금악을 찾습니다. 바람 많은 제주에서 즐기기 좋은 패러글라이딩은 제주 하늘을 만끽하게 합니다. 금오름 정상에서 출발해 선화하며 한림읍의 정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악은 오름과 '습지'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리사무소를 지나 보이는 벵딕못은 금오름까지 넓게 뚫린 시야 덕에 아름다운 전경과 못에 비치는 금오름의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금악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힘을 모아 '탐나금악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정미소, 농기계 수리센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등으로 활용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던 공간입니다. 현재 금악 핫도그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나금악 협동조합은 청정 금악에서 키우고 수확한 양배추, 당근과 같은 발작물과 마을 내 포크빌리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시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으로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다른 마을기업 로컬상품을 판매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 기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금악, 더 나아가 제주의 맛을 알리고자 합니다.





### 금악리를 온전히 담은

탐나금악 협동조합의 주력 사업은 핫도그, 소시지 및 부대찌개와 같은 먹거리 상품의 가공과 판매입니다. 청정 금악을 알리기 위해 금악의 물과 바람으로 키운 식재료를 기반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부터 먹거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화 여행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악리 사람들은 주로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당근, 적채, 브로콜리, 보리, 콩과 같은 밭작물이 주요 생산 작물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키워낸 농산물과 더불어 마을 포크빌리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시지, 햄과 같은 육가공 식품을 바탕으로 금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금악 핫도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간식, 혹은 한 끼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핫도그와 함께 금악 포크빌리지에서 생산하는 육가공 식품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돼지 훈연 소시지'와 '꿀품은 소시지'는 한 번 드셔 보신 분들의 재구매가 이어지는 상품입니다. 흑돼지 훈연 소시지는 높은 돼지고기 함량으로 진한 제주 흑돼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은은한 훈연향 덕에 더 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꿀품은 소시지는 상큼한 제주 감귤을 그대로 갈아서 흑돼지와 함께 배합해 만든 소시지로 느끼할 수 있는 소시지의 맛을 산뜻하게 잡아줍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키워낸 제주, 금악의 맛. 지역과 밀착한 먹거리로 풀어낸 금악의 맛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제주 먹거리를 널리 알리며, 지역 여행과 먹거리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여행 모델을 선도하려 합니다.

갈  
바  
름



## 금악에 살다

금악리에 나고 자라 살아오며, 마을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 마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금오름을 찾아온 것을 필두로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매체에 노출되며 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찾는 마을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더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악리는 여전히 발농사 중심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아,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힘을 모아 탐나금악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마을 자연 관광자원 및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홍보부터 마을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까지 관광과 먹거리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모두가 합심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갈  
바  
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금악리'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부터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오름에서 진행한 플리마켓인 '더불장' 역시 금악리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하며 금오름, 더 나아가 금악리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을 넘어 지역 농특산물, 우리만이 아닌 다른 마을기업의 상품, 지역 작가 및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들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지역과 마을기업 상생에 대한 하나의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으면 합니다. 마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여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 상생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마을의  
반딧불이  
빛날  
때



갈  
바  
름

반딧불이마을 영농조합법인 **이종권** 대표

이름부터 맑은 물을 뜻하는 청수리는 깨끗한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청수리에서 아주 오랜만에 땅강아지를 만났다. 반딧불이는 맑은 곳자왓에 산다. 땅강아지도 그렇고, 반딧불이도 그렇고 청수리가 맑고 깨끗한 마을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 반딧불이가 사는 마을

이곳 청수리는 제주 시내에서 대략 50km 떨어져 있는 중산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청수리는 다른 마을들에 비해 개발도 덜 되고 조용하니 살기 좋은 곳입니다. 마을마다 살아온 역사가 다르다 보니, 각 마을별로 고유한 특색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식당이나 상권들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보다는 전원적인 풍경의 '고요한 동네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수마을은 중산간마을이지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토양의 성분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복 받은 곳입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청정 제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반딧불이가 청수 꽃자왈에 최대 서식지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운문산반딧불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골목에 나가면 늦반딧불이들이 호박 넝쿨 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반딧불이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반딧불이를 중심에 두고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을기업의 불빛



청수리에도 지역 주민이 있고, 정착 주민이 있습니다. 정착 주민들은 마을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마을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분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마을에 산다면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청년들이 그나마 다른 마을보다 꽤 있습니다. 30대 초반 친구들도 한 서너 명 되고, 이제 그 위에 중간층이 약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반딧불이 불빛처럼 마을의 불빛을 밝혀주는 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희망을 갖고 마을기업을 운영합니다.

제가 맡아서 마을기업을 운영해보니 꼭 필요한 점이 연속성입니다. 마을기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표를 이장이 맡는 경우로, 몇 년에 한 번씩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직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  
바  
름



## 반딧불이 축제를 열다

반딧불이가 아름다운 까닭은 밤에 불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반딧불이 축제를 열어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내용도 만들었습니다. 반딧불이가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반딧불이 축제 기간에 주 수익이 발생합니다. 축제 기간 한 달 동안에는 하루에 600명 정도가 옵니다. 하루에 마을 주민들이 약 8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 마을 주민들에게 급여가 나올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죠. 반딧불이 해설사도 30명 정도 있습니다. 밤길이기엔 안전요원을 청년들이 맡고, 부녀회에서는 간식과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도 판매하고,

노인분들은 다른 출입구로 탐방객들이 몰래 다니지 않게 안전 지킴이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 마을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져 정도 들고 좋습니다. 반딧불이 축제는 홈페이지로 예약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한 번씩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을 하다보니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뜻을 모으면 어려움도 해결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일 겁니다. 반딧불이가 청수리를 밝게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딧불이가 계속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갈  
바  
람





마  
포  
름



## 마 푸 림



마푸림은 남쪽에서는 불어오는 부드러운 여름바람입니다.

남풍이 불면 나뭇잎은 더욱 녹음이 짙어집니다.

물 오른 나무들은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팽나무 아래 둘러앉아 마을의 안녕을 얘기하듯

마을기업은 건강한 계절을 보냅니다.



구름 따라 걸으면

죽은 섬에서



가파도마을협동조합  
강호관 대표

가파도는 청보리도 좋지만 황금보리도 풍경이 아름답다. 사람들이 청보리만큼 황금보리 풍경의 근사함도 알아주면 좋겠다. 파도치는 섬이라는 의미의 가파도 이름처럼 변화의 파도가 계속 치는 가파도에서 제주 마을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 파도 소리 가득한 가파도

가파도는 아시다시피 청보리 풍경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는 섬이 되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삼천 명 넘게 찾아옵니다. 가파도는 파도가 많이 치는 섬입니다. 태풍이 불 때는 파도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파도에 의해 큰 돌이 올라온 적도 있으니까요. 가파도에 방문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힐링하기 좋은 섬이라는 말을 합니다. 청보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길을 걸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요즘은 청보리가 황금빛으로 익어 가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선사하는 섬의 풍경이 무척 근사합니다.

지금 가파도의 반 정도가 외지인 소유이고 상업시설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가파도만의 정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청과 현대카드에 의해 가파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나오시마 예술섬을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습니다. 섬이 깨끗해져 보기 좋은 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가파도 주민의 참여가 중요했고,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법인이 설립되고 마을기업이 운영되었습니다.





## 작은 섬 큰 기업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말하자면 여기 지면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조합이기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힘들긴 하지만 조합이 잘 되는 게 곧 가파도가 잘 되는 일이니까요.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무인 카페 등대는 가파도의 쉼터입니다. 배를 타고 섬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무인 카페 등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섬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24시간 개방이다 보니 에어컨을 밤새도록 켜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를 어려워해서 난감한 경우가 많죠. 무인이지만 문의 전화가 많아 출동할 때가 많습니다.

카페에는 갤러리도 있고 책도 많고 경치도 아름답고, 참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파도의 휴식을 충분히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죠. 요즘 여러 유명한 찻집들이 많은데, 이곳은 가파도만의 특성으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카페를 찾은 분들 또한 이러한 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좋은 평들이 참 많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힘이 나곤 합니다. 지금까지 가본 무인 카페 중 최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새싹 보리 공장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업이라면 뭐 제조팀이라든가 홍보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거의 다 이 일에 문외한이라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자문과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민도 많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점차 운영을 익히는 중입니다. 이제 제법 사업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  
푸  
름

### 가파도의 내일은

현재 가파도 주민 중 반 넘게 우리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을도 그렇겠지만 가파도 역시 이제 고령 해녀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나갈 수 없으니 수제 맥주 같은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중에서 70세 이상이 꽤 됩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6차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 무인 카페에서 청보리 수제 맥주를 판매합니다. 맥주 외에도 새싹보리라떼도 있습니다. 해녀분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깁니다. 이 해녀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드리는 게 곧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파도의 특성을 살린 메뉴를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사람들에게 황금보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고 있듯 계속 변화하는 조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연환경에서 맞는 상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파도는 바람이 잘도 많은 섬입니다. 거의 매일 펄럭입니다. 최백호의 노래 '가파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보리밭에 누워 하늘을 보면 나두야 구름 따라 흘러간다네" 이 노랫말처럼 가파도가 마음 편한 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마라도에 부는 새바람



마라도 협동조합 김은영 대표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라는 의미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는 섬이다.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다가 다시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모슬포항(운진항)이나 송악산항(산이수동)에서 여객선을 타고 마라도에 갈 수 있다. 마라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마라도 협동조합이다.



## 마라도의 마음

저는 가끔 다른 일로 마라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옵니다. 마라도는 풍량이 있는 날엔 배가 안 뜨기 때문에, 배로 얼마 안 걸리지만 참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뜻대로 갈 수 없는 섬, 날씨가 안 좋으면 바다가 허락해주지 않는 섬. 그게 마라도입니다. 마라도는 작은 섬이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역사도 짧지만,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우여곡절이 많은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라도는 변화의 섬입니다. 그 변화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협동조합 대표도 하고,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여자 이장도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지내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장을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마을 주민들과 똘이 이루어 함께 사는 삶은 보람도 있고, 사는 재미도 큼니다.

이장 일을 할 무렵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마라도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마라도 하면, 아무래도 거의 다 짜장면만 떠올립니다.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이 큰 거죠. 어떤 식으로든 유명세를 타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여기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마라도는 원래 숲이 우거진 섬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사람이 들어와 화전을 하며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첫 마음은 척박한 땅을 개간해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마라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라도엔 할망당도 있고, 해녀도 있고, 천연보호구역 등 상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허락하면 언제든 오셔서 마라도를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 마라도에 살다

저도 마라도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주시에서 자랐는데, 말 그대로 '시에파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라도 남자와 결혼하면서 마라도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마라도에 살며 장사하다 보니 서로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트 때문에 서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달은 것은, 작은 섬에서 필요한 건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퇴직한 해녀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필요성은 느꼈지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조합의 운영 방법, 어떻게 참여하는가, 정관 만드는 법, 정관 내용, 기본 조합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싹 다 배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게 협동조합 운영입니다.





### 안전한 경제공동체



평생 물질한 해녀들은 은퇴 후 어떻게 마라도에서 사셔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분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마라도는 가장 먼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은퇴 해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주민들과 안전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전기자전거 대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도 이어져, 큰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만족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모델이 마라도와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친환경적이어서 좋습니다. 또, 마을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섬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방풍 막걸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섬에서도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데, 솔직히 더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방풍은 풍병(風病)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이 방풍이 자생하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드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시원하고,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을 마시게 하는 맛입니다.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짜장면집이 너무 과잉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풍이 무섭죠. 다른 메뉴의 식당을 열어도 손님들이 짜장면만 찾습니다. 그래서 마라도 해물 짜장 김치면을 만들어 사업을 분야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선물용으로 사갈 거라 기대합니다. 방풍 막걸리 덕분에 상품개발에 대한 자신이 생겼습니다.

처음 조합을 만들 때는 인수도 적고, 작은 섬이니 이 섬에서는 모두 뽕뽕 뭉치면 잘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의 인식이 다 다르니 뜻을 모으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하는 마음이 같으니 또, 가지는 거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마라도에서 마을 사람들과 계속 미래를 펼치고 싶습니다.

마  
포  
름

외할머니의 마음만큼 많은 꾸러미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고희철 대표

외갓집에 가면 인심 좋은 외할머니가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준다. 이런 외할머니의 마음처럼 제주도 농산물에 정성을 가득 담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있다. 바로 무릉외갓집이다.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은 제주도의 깨끗한 흙과 물, 햇빛 그리고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매월 꾸러미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육지의 소비자가 제주의 신선함을 식탁에서 제대로 맛볼 수 있게 해준다.



### 무릉외갓집의 탄생

무릉외갓집의 꾸러미 사업은 2009년에 (사)제주올레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인 '1사(社)1올레'를 통해서 무릉2리와 (주)벤틀코리아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주)벤틀코리아의 제안으로 무릉2리의 마을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릉2리의 꾸러미 사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릉외갓집이 마을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응원해 주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두에(愛)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제주도의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  
푸  
름



## 외갓집 공간을 열다



무릉외갓집의 꾸러미서비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농산물꾸러미는 2009년에 시작되어서 제주도의 제철 먹거리 5~6가지를 담아서 매월 고객에게 보내 드리는 서비스로 무릉외갓집의 가장 대표 서비스입니다. 두번째 과일꾸러미는 2017년에 시작되어서 매월 제주도 제철과일을 4~5가지를 보내 드리고, 세번째 족은(작은)꾸러미는 소규모 가족을 위해서 202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꾸러미 서비스 외에도 꾸러미 고객들이 꾸러미에 담았던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면서 단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꾸러미 고객과 올레꾼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로컬푸드와 음료를 판매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릉외갓집에서는 외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꾸러미를 싸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우리 마을은 햇빛이 최고

무릉2리는 제주도 서남쪽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올레 11코스외의 종점이고, 12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해서 매년 4만명의 올레꾼들이 다녀가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된 무릉곶자왓과 여러 개의 연못이 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릉2리의 또다른 장점은 흙과 햇빛입니다. 무릉리는 점질토이면서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일조량이 좋아서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늘(마늘)이 가장 대표 작물입니다. 무릉리가 포함된 대정읍은 우리나라 마늘의 주산지로 제주도 마늘생산량의 75%, 우리나라 마늘 생산량의 12%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마늘 외에도 콜라비,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무, 대파, 쪽파 등 다양한 월동채소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또 다양한 감귤과 곡류들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 분교에서 다시 출발

무릉2리에는 1994년에 폐교된 무릉동 분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마을주민 모두가 공부했던 마을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폐교를 다시 단장해서 무릉외갓집이 2022년 6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복합문화농장 무릉외갓집'은 무릉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이고,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이고,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전시,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마을의 문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릉외갓집으로 다시 태어난 폐교가 다시 마을의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을기업

무릉외갓집의 직원들은 모두 도외에서 온 이주민들입니다. 무릉외갓집의 꾸러미고객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꾸러미고객을 잘 아는 이주민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민인 생산자와 이주민인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도시에 살고 있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러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살고 있는 도시 삶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릉외갓집은 도시에 살고 있는 무릉리 출신 자녀들이 다시 무릉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업을 이어가듯이 무릉외갓집을 마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묘목을 키우는 마음



마  
포  
름



운지오름영농조합법인 **현정운** 대표

오름의 모양이 구름 같다는 운지오름. 예부터 제주의 오름은 제주 마을의 삶터였다. 오름에서 마소를 기르고, 고사리 같은 나물을 캐며 살았다. 꿀꽃 향기가 바람에 날리는 늦은 봄날, 마을과 오름과 꿀에 대한 정성이 느껴지는 운지오름영농조합법인 사람들을 만났다.



## 육묘 사업에 대하여



여기 남원은 굴 농사가 주산업입니다. 그런데 굴나무들이 대체로 오래 되어 노령화 되었습니다. 죽는 나무도 발생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노인이 다 된 거죠. 제가 평생 굴 농사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은 굴 농사만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제 농사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생깁니다. 그 점이 아쉬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육묘사업입니다. 열심히 키워서 육묘 분양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큰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공동으로 일할 때, 모이면 답소도 나눌 수 있고 마을 단합이 되어 좋습니다. 하지만 바쁘다 보니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사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묘목은 다른 과일과는 달리 최소 1년 단위로 길게 보면서 해야 하니까 매출이 금방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접목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  
포  
름



## 농부의 마음

우리 마을주민들은 생산자이자 곧 소비자입니다. 그만큼 농업은 순수한 구조입니다. 진득하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혼자만 잘 될 수 없습니다. 묘목을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그 묘목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동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또, 마을 선과 장을 함께 운영합니다. 농사가 힘들긴 하지만 수확할 때 재미도 있고 기운도 납니다. 농사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전정할 때도 해봐야 아는 겁니다. 접목을 붙이는 것도 경험으로 터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선과장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또, 중요한 것은 새로운 품종 개발입니다. 굴 맛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요즘 신세대가 굴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럼, 굴 맛이 변한 것인지 신세대의 입맛이 변한 것인지 확인해야겠지요. 그런 고민이 묘목과 접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수익만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품종과 가격에서 차이가 나니 맘 흘러 일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  
포  
름

수익이 바로 나지 않아서 힘든 면도 있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 농사를 짓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마을에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을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린묘목을 키우는 마음은 이 마을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묘목을 만들고, 심고, 키우고 하다 보면 나무는 쑥쑥 자라서 마을에 큰 보람을 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굴 묘목 생산을 계속하고, 마을 선과장도 운영하여, 천천히 자라지만 나중에는 결국 큰 보답을 주는 나무처럼 희망 가득한 마을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처럼 육묘사업이 마을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서서히 빛을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운치오름이 지금껏 우리 마을에 좋은 기운을 준 것처럼, 계속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우리 마을을 감싸 줄 거라 확신합니다.



숲과  
마을의  
마주보기



마  
포  
름



### 머चे왓 숲길 영농조합법인 고철희 대표

마을의 숲을 지킨 한남리, 자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보답을 나눠준다. 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에서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힐링 마을이 되었다. 걷기 좋은 머चे왓 숲길을 가꾸는 한남리.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면 머चे왓 숲길을 걸어 보자.

## 한라산 남쪽 마을



한남리는 남원읍의 중산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감귤 농사만 짓는 마을입니다. 인구는 대략 500여 명 살고 있고, 말 그대로 한남리, 한라산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을입니다. 마을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마을에는 유명한 관광지나 명소가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 다. 제주도는 관광자원이 경제성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자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머채왓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서중천이 있었습니다. 머채왓 숲에는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오래전 사람들이 살던 집터, 고사리 움막 쉼터, 편백 숲길, 방사탑 등 멋진 곳이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머채왓 숲길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시작한 이후로 관광객이 더 많이 옵니다. 마을 사업 관련해서 육지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방문객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생기면서 마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머채왓의 머 채는 돌무더기를 뜻하고, 왓은 밭입니다. 돌밭이지만 이곳을 걸으면 숲터널, 조록나무군락, 구지뽕나무숲, 동백나무숲, 야생화 꽃길, 삼나무숲, 편백나무숲 등은 물론이고 맑은 새소리와 풍경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꽃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초여름에는 때죽나무꽃이 한창입니다.





## 머체왓 숲길을 걸으면

이곳은 제 고향입니다. 예전 어린 시절과 지금의 풍경을 비교하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네나 잡고, 고사리나 꺾고, 혹시 '불치(쇠고사리를 말려 태운재) 손다'는 말을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초목을 모아 땀감으로 이용했는데, 그때 그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예전에 모 기업이 이 마을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형상 골프장이 들어오면 지하수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반대했습니다. 결국 골프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곳이 머체왓 숲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참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께 야외 족욕 체험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보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불명, 물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숲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체험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힐링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숲 탐방 걷기, 숲속에서의 요가, 피크닉 즐기기 등을 통해 치유와 힐링이 가능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제주의 전형적인 숲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그러니 제주의 원시림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머체왓에는 약초도 많습니다. 예덕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토복령(청미래덩굴 혹은 망개나무 뿌리)으로 만든 차를 마시면서 숲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  
포  
름



## 마을기업을 한다는 것

법인도 사실상 원리에 따르면 경제적 수익이 나아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즉육 체험과 같은 체험 위주라든지, 숲 해설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높은 매출을 올리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기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고용 창출의 면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숲 해설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기업 신청할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풍광을 활용한 즉육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실내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니까 옥상에 야외 즉육장에 관한 생각이 컸습니다. 최근 야외 즉육장 이용객들도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한다는 평을 들곤 합니다. 저희가 통계한 바로는 1년 방문객이 23만 명(2022년도 기준) 정도 집계가 되는데, 집계가 안 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30만 명은 족히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도 있어서 회의도 하고 다른 지역에 마을기업 사례 보러 방문하면 이곳에서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을 위해 목공 교육, 난타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니까 이곳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체왓 숲길이 우리에게 선물을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머체왓 숲길을 보존하면서 자연 속에서 공생하는 길을 찾아 함께 할 것입니다.





마  
포  
름







제주 마을 이야기  
여기 있소!





하  
니  
부  
름

### 협동조합모두락 김미선 대표

올레길(골목길)마다 이야기가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올레 문화가 많이 사라진 요즘 바느질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곳이 있다. 제주시 신촌리에 위치한 협동조합 모두락이다. 모다들영 바느질하면서 이야기로 꿈을 꾸는 곳이다.



### 구슬할망이 만든 모두락

처음에는 도서관에 모여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러다 이 마을에 전해오는 구슬할망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구슬할망이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으로 남아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지향점과 맞닿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슬할망 공방은 딸들이 딸들에게 전하면서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조합명 모두락은 '한곳에 모여 있다.'라는 제주방언에, 다 함께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모두락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모여서 즐겁게 만들기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즐거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기에는 문화기획 쪽 보조금 사업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마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느질공방이지만, 남자 조합원도 있답니다.



## 이야기를 바느질하다

해녀였던 구슬할망 캐릭터와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생활 소품 등을 만들고 있어요. 프리마켓에 참여도 합니다. 서울에 가서 박람회 같은 데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해녀구슬할망 캐릭터가 인기를 끌었어요.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는 제주인에게는 친숙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해녀의 삶에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남이라는 남아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마을에서 골목 축제를 할 때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마을에서 자란 봉남이 삼촌의 어린 시절을 캐릭터화 해서 그런지 다들 공감하는 캐릭터가 탄생했어요. 열쇠고리, 액세서리, 헤어밴드 등을 만들어요. 이 모든 상품에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바느질하는 셈입니다.

제가 1970년대생입니다. 그나마 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 세대이고, 골목에서 놀이를 한 세대입니다. 제일 자유롭고 행복한 유년,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가 아닌가 해요. 하지만 요즘은 마을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듯해요. 사라져 가는 골목 문화 이야기를 바느질로 천과 천을 하나로 이어가듯 디자인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잉을 무척 어려워하는데 알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팩키지 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만들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은 추억이 되겠지요.

하  
니  
부  
름



## 재봉틀이 있는 풍경

집에 재봉틀이 있으면 풍요롭습니다. 천을 이용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재봉틀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재봉은 참 창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네모난 천을 가지고 어느 날 똑딱 가방을 만들어 형체가 생긴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내가 상상한 것을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재봉 교실을 해보면 우선 이걸 로망 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긴 해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분들, 만들어서 아이한테 준다든가 뭐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든가 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리 있잖아요. 다다다다. 이게 잔잔한 드럼 소리처럼 듣고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심장 박동 소리를 닮기도 하고, 숨소리랑 비슷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바느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실기 과제가 있었는데, 수선집 찾아가서 몰래 해서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도서관 평생교육에서 배우게 된 재봉 교실을 통해 재봉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조합에서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으며 이야기하기를 즐겼는데, 이야기의 창의성이 옷 만들기에 적용되면서 신기하게 계속하고 싶게 되었어요.





### 우리가 바라는 건

수제의 특성상 이게 대량 생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아주 크게 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봅니다. 조합원들에게 많은 수익을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 힘들어요. 제주이야기를 담은 공예품을, 중국산으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좀 아쉬워요. 기존의 기업처럼 수익만 생각하면 힘든 작업이지만 사회적 경제나 마을기업을 생각하면 이 일이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사라져 가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을 다시 그려서 파우치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제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나만의 오재미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골목 놀이를 해보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골목 안이 떠나가게 옷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찾아가는 소잉 교실도 운영합니다. 재봉이 없는 분들도 배울 수 있도록 재봉틀을 갖고 찾아갑니다. 아이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이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간 세대가 빨리 발굴하고 기록하고 완성 시켜서 그걸 다음 세대에 이어주면 그다음 세대가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시스템을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이야기들이 마을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서 그걸 다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그 후손들이 다시 후손들에게 전하면 마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 믿어요.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여 즐거움이 가득한 협동조합 모두락의 '구슬할망공방'이 연결고리가 되어, 자연스럽게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행사나 상품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여, 끈끈한 마을의 생활문화 공동체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성이  
곧  
따뜻한  
마음



### 영농조합법인 샴의벳탐라차 정대수 대표

자청비 신화의 고장 광평리, 땅의 은혜를 받듯 샴의벳탐라차는 땅에서 나는 야생차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이다. 자청비가 곡식을 뿌려 풍요가 오듯 광평리에서는 들녘의 야생차가 마을의 좋은 벼이 되어주고 있다.



하  
니  
부  
름

### 광평리와의 만남



광평리의 옛 이름은 넓은드르입니다. 평평한 땅이 넓어서 지어진 이름이죠.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인데 이렇게 넓은 마음처럼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광평리는 4.3사건 전만 해도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4.3 이후로 조가동 같은 잃어버린 마을도 생기고, 아픔이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도 이 마을 주변엔 숨은 명소가 많습니다. 왕이메오름, 영아리오름 등 오름이 많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창고천이 흐릅니다. 제주 설화에도 등장하는 행기소가 있는 마을입니다. 행기소는 상수도가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된 식수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재건사업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대부분 축산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여기 사는 노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소개하는 책을 내기도 했지요. 마을의 기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년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넘게 광평리에서 차의 반 타의 반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 마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계가 뚜렷하고, 물 좋고, 공기 맑은 마을입니다. 제가 꿈꾸던 전원적인 곳이었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 대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사람들이 마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공기 탁한 도시에만 있지 말고 이런 맑고 조용한 마을에서 살면 좋는데 말입니다.



## 건강 차를 만드는 시간

정착 초기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었죠. 왜냐하면 육지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노인회장도 하고, 이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상에도 없던 이장을 하면서 이 마을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장을 하니 정기적으로 이장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민자치 예산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마을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야생차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을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살폈더니 뽕나무, 구지뽕나무, 감나무, 인동초, 산죽(조릿대), 감국 등이 있더라고요. 마을 노인들과 함께 일을 따 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차 만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제다 명인 효월 이기영 선생을 모시고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찾일은 정성이 필요한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령화로 인해 마을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를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 사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광평마을 주변 들녘의 자연 자원을 이용해 마을기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장을 그만두니까, 마을에서 그러면 당신이 설립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운영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차 만드는 일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은 제주다운 야생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의 유기농 감귤차와 제주 녹차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녹차를 발효시킨 홍차를 청굴에 넣고 숙성시켜 말려서 탐라차고유의 청굴홍차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하  
니  
부  
름





## 삶의 벗, 탐라차

◇ 우리 기업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구증구포 방식으로 수작업을 하는 점입니다. 대량 생산의 기계화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장 옆에는 시음장이 있는데, 여기서 청보리순차, 겨우살이차, 감국차, 뽕잎차, 황칠나무차 등 다양차를 마셔 볼수 있습니다. 굴로 만드는 진피차는 겨울에 먹으면 감기를 예방에는 최고인 차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주도 사람들은 굴껍질을 말려 진피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소중한 옛 것은 이어가면 좋겠지요. 우리 마을은 해발이 높은 고지입니다. 그래서 가파도 바닷가 청보리와는 맛이 다릅니다. 청청보리의 순으로 해서 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보다 훨씬 몸에 좋은 이런 야생차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자 계획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참 좋습니다. 차를 벗어나 곁에 두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삶의 벗으로 차를 두는 겁니다.

요즘 걱정이라면, 마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희망이 있는 마을인데, 여기서는 그런 풍경을 보기가 힘들어요. 마을에 있는 식당 직원들도 거의 다 다른 마을에서 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을에 와서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을에서 일할 사람이 생겨, 좋은 차를 만드는 과정을 전수해 줄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제주 브랜드를 위해



### 제주본초협동조합 구자권 대표

마을기업은 공공성과 공동체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성과 지속성이다. 지속 가능한 매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한라산 중턱,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본초협동조합은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제주의 경제성을 경쟁력 삼아 제주 마을기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제주의 정체성을 담다

본초는 약초를 뜻하는 말로 천연작물을 일컫습니다. 제주본초는 제주의 천연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입니다. 약초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 그중에서도 중심인 한라산의 입구에 위치한 마을인 아라동은 한라산의 기운이 서려 있어서 제주본초의 의미와도 잘 어울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하기 위해 안성맞춤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같은 지역에 위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원물가공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수급과 개발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력 아이템은 제주의 천연자원인 황칠, 동백, 유채, 메밀, 비수리(야관문) 등으로 만드는 전통주와 가공품입니다. 이곳 아라동은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며, 생산, 물류, 개발 등의 인프라가 좋아 제주 최고의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있으니 연구 개발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도 좋습니다. 대표적 제품인 전통주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대적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인 동백꽃 제주, 유채꽃 제주, 메밀꽃 제주, 어우야, 흑돈주 등이 있고, 원물가공업인 비트파우더, 황칠장어즙과 결합상품인 제주 흑돼지 선물세트, 제주 은갈치 선물 세트등도 전통주와 결합한 푸드 페어링 형태로 판매합니다. 앞으로 증류주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성과 지속성입니다. 제대로 된 로컬푸드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들을 활용하여 전통주와 식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층)로 인력을 채용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2년 행정안전부 선정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타의 귀감이 되었으며,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 금상, 웰니스 6차산업 대상 등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하  
니  
부  
름





### 동백꽃, 제주... 그 한 병의 이야기



우리 조합의 전통주 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동백꽃, 제주'입니다. 주정을 섞지 않은 순수 발효주로써, 화려한 색깔과 달콤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여성 소비자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진홍색의 색깔을 눈으로 한번, 달달한 향내가 은은하게 풍기는 꽃향기를 연상시키면서 코로 또, 한번,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부드러운 목 넘김까지. 한 잔의 술로 3번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시고 난 뒤에 깔끔하다는 평이 많아, 다시 찾는 마니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의 먹거리와 잘 어울려 푸드 페어링용 곁들임 주로도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개발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동백주는 와디즈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사례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동백꽃, 제주는 지역의 아픔인 4.3을 위해 만든 헌정 주입니다. 4.3 희생자유족회를 위하여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술을 판매하면서 4.3 동백꽃 배지를 같이 배포하여, 그 아픔을 나누었으며, 4.3 위령제의 제례용 술로도 선정되어 매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이 지역의 공헌사업을 중요시하는 것은 순순환을 위해서입니다. 순환을 통해 수시로 체질 개선을 할 때 지속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순순환이 마을기업의 유지에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  
니  
부  
름





## 제주 마을기업의 경쟁력은...

제주본초협동조합은 제주를 여행하는 젊은 여성층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취향과 소비 심리를 마케팅 전략의 바탕으로 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달한 맛을 선호하며, 무엇보다 디자인이 좋아야 한다는 등의 그들만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틈새시장 같지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블루오션의 큰 시장입니다.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마케팅하는 것이야 말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주에는 경쟁력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제주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동백, 유채, 메밀꽃 같은 경우도 여러형태로 상품화가 되었지만, 전통주로 개발된 것은 우리 조합이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특히, 제주는 같은 섬 속에서 동, 서, 산북, 산남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방문객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녹여내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말 그대로 보물섬입니다. 청정섬의 이미지가 제품의 프리미엄을 담보해 줍니다.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제주 마을기업의 앞날이 밝은 이유는 그 무한한 잠재성 때문입니다.

하  
니  
박  
름







# 제주 는 작은 지구



하  
니  
부  
름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이경미 대표

지구를 1회용품처럼 쓰고 버릴 수는 없다.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은 제로웨스트를 실천하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고민하는 마을기업이다.





## 지구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

월랑마을은 노형동에 있는 자연마을 중 한 곳입니다. 월랑(月朗)은 원래 달이 밝다는 뜻인데, 월랑을 떠올리면 마치 달빛이 출렁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이름은 다랑곳 또는 다랑곳이라 불린 마을입니다. 흔히 신제주라고 하면 도심을 떠올리시겠지만, 월랑마을은 신제주권에 있지만, 평균 연령이 높고 원주민이 많은 마을입니다.

저는 10년 전 이곳 노형동에 정착했습니다. 신제주권 생협 활동가로 일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주된 일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일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운동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도는 제로웨이스트를 알리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곳 제주는, 작은 지구입니다. 제주는 환경과 개발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연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리고 자원을 아끼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구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은 자연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연에서 온 소재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번기에 흘려보내는 휴지 한 장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으로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브랜드 '소락', 지구를 위해 별별 것을 다 파는 유통 채널인 '지구별 가게' 이 두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별 가게는 오가닉 순면 생리대, 오가닉 순면 와입스, 오가닉 소창 티백, 오가닉 소창 커피 필터, 오가닉 순면 비누망, 고체 치약, 대나무 칫솔 등 300종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는 지구를 위한 편의점입니다.



## 친환경 마을기업

우리 조합의 시작은 소비자 생협으로, 조합원 모두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는 엄마 혹은 여성이었습니다. 2016년 5월 마을 모임을 하던 중에 뉴스에서 깔창 생리대를 쓰는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여러 마음이 모아져 무작정 친환경 생리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면생리대 나눔 이야기는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시 마을활력과의 마을기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우리 조합의 대표 제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로웨이스트 관련 다양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환경교육, 제로웨이스트 여행과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등을 진행하며 제주의 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  
니  
바  
람





## 순환과 협력

쓰레기를 줄이는 시작은 나 먼저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개인이 쓰레기를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책임감으로 이 사회에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시중에 판매하는 반짝이는 아크릴수세미 대신 천연수세미가 있음을 알리는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을주민으로 이루어진 '수세미클럽'에서 삼베 실로 천연 수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세미는 청년 환경 단체에 기부됩니다. 공유옷장과 공유텃밭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마을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나중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내 옷이 누군가의 새 옷이 되고 누군가의 옷이 나의 옷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옷을 소비하는 대신 경험과 여행에 소비하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키운 샐러드 채소로 이웃들과 나눔하고 순환과 협력을 배웁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구별 가게가 사랑방이 되어 공간을 내어 주고 동행하며 함께 하는 그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하  
니  
박  
름









## 금능맛차롱 협동조합

‘차롱’은 제주에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이웃과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던 대나무로 만든 도시락을 말합니다. 금능맛차롱은 제주도 금능리의 다양한 맛과 멋을 차롱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금능맛차롱 협동조합은 금능리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서 마을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 금능리 해녀들이 채취한 뽕소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바  
람





더  
바  
람

## 하례마을공간내창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초교육 때 들은 '필연적 우연'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모아 여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필연적 우연일 겁니다. 우리에게 마을기업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지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마을기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멋진 마을주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제주담은협동조합

더  
바  
람



시작 후 1년여 동안 경제적으로도 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준비과정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자 인고의 노력으로 마을기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기업의 선정은 마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마을기업으로 괄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바  
람

##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

우리 기업은 청년들이 모여 만든 청년 마을기업입니다. 앞으로 중년 그리고 노년이 될 때까지 장수하는 마을기업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구좌 지역을 대표는 마을기업이 되어 마을과 상생하며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구좌마을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과 치유관광을 연계한 서비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주돈내코힐링센터협동조합





더  
바  
람

마을기업은 마을 어르신들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민들의 소득을 높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협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번 마을기업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는 힘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큰 용기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e

ee



ee

ee

e

ee



ee

ee

# 제주마을기업



- ① 백년의굴항기 영농조합법인
- ②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주)
- ③ 농업회사법인 사려니(주)
- ④ 농업회사법인 (주)섬지코지
- ⑤ 앤씨푸드 영어조합법인
- ⑥ 구좌친환경당근 영농조합법인
- ⑦ 농업회사법인 (주)고산
- ⑧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 ⑨ 서귀포귀농귀촌 협동조합
- ⑩ 신엄새마을 영농조합법인
- ⑪ 신천리 영농조합법인

- ⑫ 새마을알뜰매장 혼디모양 영농조합법인
- ⑬ 환경농가주부모임 영농조합법인
- ⑭ 영농조합법인 조수리 농부의아침
- ⑮ 온평모다들영(주)
- ⑯ (주)에스지아큐먼
- ⑰ 성산제이물산(주)
- ⑱ 제주본초 협동조합
- ⑲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 ⑳ 반딧불이마을 영농조합법인
- ㉑ 송당상회 영농조합법인
- ㉒ 제주생이마을 영농조합법인



- ⑫
- ⑬
- ⑭
- ⑮
- ⑯
- ⑰
- ⑱
- ⑲
- ⑳
- ㉑
- ㉒



- |                    |                  |
|--------------------|------------------|
| ②3 추자도영흥 영어조합법인    | ③4 운지오름영농조합법인    |
| ②4 ㈜해마             | ③5 탐나금악협동조합      |
| ②5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 ③6 금능맛차롱 협동조합    |
| ②6 ㈜그레고내바다         | ③7 제주담은협동조합      |
| ②7 가파도마을협동조합       | ③8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
| ②8 마라도협동조합         | ③9 제주돈내코힐링센터협동조합 |
| ②9 협동조합 모두락        | ④0 하례마을공간내창협동조합  |
| ③0 영농조합법인 삶의벗탐라차   | ④1 ㈜제주양레저체험파크    |
| ③1 머체왓숲길 영농조합법인    | ④2 농업회사법인 ㈜난드르   |
| ③2 영농조합법인 하례2리 새일  | ④3 농업회사법인 ㈜월령    |
| ③3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 ④4 수망리청년회(주)     |

바  
라  
'  
이  
야  
기

제주마을기업의



---

발행처 **Jeju**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행일 2023. 07. 13.

편집·감수 정윤창 정창보 박창우 김나영

디자인 디자인소담



# 바라, 이야기

제주마을기업의

